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765.3011~3





표지

아들과 나(息子と僕)

제7회 한일포토콘테스트 돗토리현상

Photo : LEE SADO

통권 573호 계간지

발행일 2021년 9월

발행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디자인 상상디자인

Contents

특집

- 03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을 마치고
‘만날 수 없어도 함께 가요!’
- 06 일본 문화원 리포터 활동
 - 한일축제한마당에서 얻은 추억과 소망이라는 이름의 선물
 - 젊은 세대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 자리
- 08 日本語で語るニッポン -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홍보 메세나, 오카와 노부코 인터뷰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라는 함성으로 2022년 축제를 시작하고 싶어요
- 12 2021 한일축제한마당 사진·영상 콘테스트
- 13 한일축제한마당 체험 프로그램
일본 요리와 술 이야기

일본 문화

- 14 일본의 박물관 미술관
고치에서 만나는 구마 겐고의 건축 작품, 구름 위의 갤러리
- 18 집에서 손쉽게! 일본의 가정요리
가을의 미각
- 20 영화 속 한 장면을 찾아서
추억의 드라마 속 한 장면 ‘괜찮아 사랑이야’ 오키나와

일본 사정

- 24 트렌드 앤 트렌드
도쿄의 하늘을 바꾼 마천루에서, 도쿄의 새로운 전망을 만나다
- 29 일본의 계절을 걷다
초록이 가득한 아오모리의 숲을 걷다
- 34 조금 특별한 공간 미치노에키
열차와 바닷가 풍경, 야마구치의 미치노에키

공보문화원 광장

- 39 영화홍보전단 일한 비교전을 마치고
- 40 제14회 전국학생 일본어 연극발표대회를 마치고

문화행사

- 41 일본국제교류기금 순회전 ‘인형-예술과 아름다움의 일본인형전’
- 42 2021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 43 제8회 한일포토콘테스트 개최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 44 공주는 NOW-1



Instagram
@j.munwhawon
<https://www.instagram.com/j.munwhawon>



YouTube
<https://www.youtube.com/user/JapanEmbKoreaPICC>



Facebook
@j.munwhawon
<https://www.facebook.com/j.munwhawon>



NaverBlog
<https://blog.naver.com/bunkain>



‘만날 수 없어도 함께 가요!’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 온앤오프로 개최



한국과 일본 간의 민간 문화교류 행사 중 최고로 손꼽히는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이 9월 5일 정오부터 약 3시간 동안 ‘만날 수 없어도 함께 가요!’를 테마로 온앤오프 축제로 관객과 함께했다. 내 집 안방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준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은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다.

1부는 축제의 주제를 담은 오프닝 영상과 의미를 표현한 ‘고리’의 북 공연, 손경식 실행위원장의 개회사, K-POP과 J-POP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TO1’과 ‘FES☆TIVE



(페스티벌)'의 축하 메시지, 한국 포크록 밴드 '여행스케치'의 축하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축하 무대가 시작되는 2부는 안방에서 즐기는 스웨그(swag) 타임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 아티스트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일본의 버추얼 싱어 '하즈네 미쿠' 공연에 이어 한국의 퓨전 국악팀 '비단'이 흥을 더하고 일본의 오리엔탈 사운드 팀 '료마 사중주'가 독창적인

연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3부, J-POP 걸그룹 'FES☆TIVE(페스티벌)'가 히트곡 'OIDEMASE'를 화려한 댄스와 함께 열창하고 K-POP 차세대 보이그룹 'TOI'이 패기 넘치는 퍼포먼스로 응답했다. 일본 전통무용에 엔터테인먼트가 가미된 창의적인 무대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게이마루작'의 공연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한누리무용단'의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졌다. 한국의 음





악과 일본의 춤이 만나 이루어진 ‘요사코이 아리랑’과 ‘요사코이 퍼포먼스’가 대미를 장식했다.

축제의 또 다른 ‘키워드’ 체험 부스. 온라인을 통한 양방향 체험 콘텐츠로 집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현장의 무대 행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일본 요리와 술 이야기, 한국과 일본의 전통의상 체험, 사진·영상 콘텐츠, 일본 특산물 소개, 양국을 대표하는 음악을 감상하는 부스 등이 현장에 설치되었다.

또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 지자체를 비롯해서 재단법인 조선통신사역사관, 일한문화교류기금, JET-AA 등 23곳의 온라인 부스를 설치하여 일본의 문화를 더욱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온라인 부스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 라이브 방송 영상은 한일축제한마당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한일축제한마당에서 얻은 추억과 소망이라는 이름의 선물

황인혜 일본문화원 리포터(7기)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의 해’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이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민간 문화교류 행사 중에서도 손꼽히는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은 ‘만날 수 없어



도 함께 가요(会えなくても共に歩もう)’를 주제로 9월 5일(일) 정오부터 온라인 라이브 중계로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언택트 프로그램에 오프라인 행사가 더해진 하이브리드 형태의 진행을 통해 직접 축제에 자리하지 못하더라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이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사 현장에는 지난 7월에 개최되었던 사진·영상 콘테스트의 당선작 전시와 더불어 4개의 체험 부스를 마련해 25명의 자원봉사자가 체험을 재현하고 관객들은 이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이루어진 입장자의 체험으로, 한국과 일본의 전통의상인 한복, 기모노 그리고 유카타를 입어보면서 의상에 깃든 각 나라의 문화와 매력

을 생생하게 느끼는 서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가 하면,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양국에서 유행했던 추억의 음악을 들으며 그 시대의 감성에 젖어 들기도 했다. 아울러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현부터 일본 혼슈의 최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현까지 전시를 통해 일본 전국 각지의 특색이 담긴 지역 특산품과 사케를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었던 경험은 이번 축제를 함께한 모두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필자는 일본문화원 리포터로서 취재를 이어가면서 한일축제한마당이 한창인 이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작은 규모로 열릴 수밖에 없었던 이번 축제에 대해 만감이 교차하던 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과 분위기 속에 축제를 만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과 일본의 우호 증진을 향한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듯한 순간을 실감하며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추억이 될 이 날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새기는 모두를 위해, 또다시 찾아올 한일축제한마당에서는 수많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직접 자리매김함으로써 축제의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젊은 세대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 자리

임경은 일본문화원 리포터(7기)

2021년 9월 5일, 대규모 문화교류 행사 ‘한일 축제한마당 2021 in Seoul’이 개최되었다. 양국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 ‘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로 시작되어 올해로 17회를 맞는다. 양국의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가는 축제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만날 수 없어도 함께 가요’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다. 인적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 예술의 민간교류만큼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다. 인젠가 한일축제한마당 행사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무대공연과 퍼레이드, 전시장에 늘어난 다양한 부스,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환하게 웃는 사람들. ‘이 광경 속에 나도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 실제로 그 현장에 리포터로 오게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물론 언택트로 진행되었기에 모든 이들이 현장감을 느끼긴 어려웠지만, 이것도 코로나 시대 행사의 모습이니만큼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은 크게 체험 부스 현장 리포트와 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슬로건에 맞춰 1부는 즐거운 축제, 2부는 즐거운 만남, 3부는 즐기는 우리



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2부와 3부로 넘어가기 전에는 ‘체험 부스 현장 리포트’를 통해 직접 현장에서 문화 체험을 할 수 없는 분을 위해 각 부스의 소개를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은 한국 포트락 밴드 ‘여행스케치’의 무대로 시작을 알렸다. 한국의 출연 단체는 타악 그룹 ‘고리’, 퓨전 국악 ‘비단’, K-POP 아이돌 그룹 ‘TO1’, 한국 전통무용 ‘한누리무용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본의 출연 단체는 일본과 서양을 절충한 그룹 ‘료마 사중주’, ‘게이마루좌’, J-POP 아이돌 ‘페스티브’, 가상 가수 ‘하츠네 미쿠’로 구성되었다.

요사코이 퍼포먼스

한일축제한마당의 피날레는 2022년 축제를 기약하는 요사코이 퍼포먼스로 장식했다. 요사코이 아리랑이란 일본에 유명한 여름 축제에서 추는 ‘YOSAKOI 소란’ 춤을 한국의 민요 ‘아리랑’에 맞추어 누구나 쉽게 출 수 있도록 만든 창작 무용을 말한다. 한누리무용단에 맞춰 다 함께 요사코이 아리랑을 즐겁게 따라 추는 모습은 모두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한일축제한마당은 양국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으며, 앞으로 젊은 세대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라는 함성으로 2022년 축제를 시작하고 싶어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사회자이자, 올해는 축제 홍보 메세나로서 활약하고 있는 오카와 노부코(大川信子) 씨의 활동 소감과 한일축제한마당에 대한 생각을 서면 인터뷰로 들어보았다.

한일축제한마당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으며, 또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2011년 벚꽃 피는 계절에 한일축제한마당 사회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일본대지진이 있던 해였는데, 이걸 ‘내 사명이다’라는 생각에서 프레젠테이션부터 참여했습니다. 그 해는 도호쿠 출연자에 대한 대응도 있었고, 2011년 당시는 한국과 일본의 무대 사용법이나 진행의 차이가 있어서, 무대 분위기를 살릴 뿐 아니라 아나운서 경험이 있는 사회자로서 현장 대응 능력과 즉흥적인 진행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다시 배우기 위해 다양한 축제나 무대 연출, 필요한 한국어와 분위기 조성법, 한국 콘서트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구성을 배우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 축제의 무대 구성에도 참여하는 등 새로운 도전과 경험치를 살릴 수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출연하길 잘했어’, ‘축제에 또 가고 싶다’라는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에서 움직였는데, 그 노력으로 보물을 손에 넣은 듯합니다. 스태프와의 신뢰 관계도 그중 하나이며 그들의 연락이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고 해석한 것이 지금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日韓交流おまつりをいつごろ知ったのか、また、参加するようになった特別な契機があれば、聞かせてください。

2011年の桜が咲く季節に日韓交流おまつり司会者の連絡を受けました。東日本大震災の年ですね。これは私の使命だと感じてプレゼンテーションから参加しました。その年は東北からの出演者への対応もあったり、2011年当時は日韓の舞台の使い方の違い、進行の違いというのがあり、舞台を盛り上げるだけでなく、アナウンサー経験のある司会者として現場対応能力、アドリブ力が求められているという話をいただきました。それでもう一度、韓国の文化や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を学ぼうと様々なお祭りや舞台演出、必要な韓国語や盛り上げ方、韓国のコンサート構成、バラエティー番組の構成を学び、自らプランを出しておまつりの舞台作りにも関わっていく等、新しい挑戦と経験値を活かせるスタートでした。「出演して良かった」、「またおまつりに行きたい」という良い記憶として残ってほしいという思いで動きましたが、その努力の結果で宝物を手に入れたと感じています。スタッフ陣との信頼関係もその一つです。彼らの連絡を「未来に向けた希望を届ける」と捉えたのが今に繋がっていると思います。

이번에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홍보 메세나로 활동하게 된 소감은 어떤가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와 같은 행사라면 연출 진행팀과 무대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올해는 온라인 개최라 일본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한일축제한마당 홍보 메세나’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회자로서의 경험을 학생 여러분이나 한국과 일본 기업 관계자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홍보 메세나로서 ‘축제를 봐주세요, 이런 축제가 있어요!’라며 미디어나 각 기업, 학생 여러분께 전하면서 자원봉사자 제도나 각 기업의 후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 메세나의 ‘나 홀로 산책’이라는 칼럼을 홍보팀과 함께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이나 여행 풍경을 소개하여 축제를 보는 분들이 ‘일본에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발신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자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행사장에서 본 차세대 후배가 한일축제한마당 사회자가 되고 싶다며 서울 행사의 사회를 맡은 후지모토 사오리 씨나 도쿄 행사의 중계 스튜디오 사회를 본 유키카 씨 같은 후배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온라인 개최를 경험하며 오프라인은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겠지만, 그만큼 보람과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홍보 메세나로서도 기쁜 일입니다. 출연진 역시 한일축제한마당 무대에 서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축제로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니까요.

今回、日韓交流おまつりin Seoulの広報メセナとして活動することになった感想はいかがでしょう。

主な活動は何でしょうか。

今までのようなイベントであれば、演出進行チームと組んで舞台での司会者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ますが、今年はオンライン開催なので日本でも活動出来る「日韓交流おまつり広報メセナ」という役割をいただき、光栄に感じています。司会者として培った経験を学生や各日韓企業の皆さんにもお話する機会をいただいています。広報メセナとして「おまつりを見て下さいね、こういうおまつりがあるんです！」とメディアや各企業、学生の皆さんにお話ししながら、ボランティア制度や各企業支援についてもお話しています。また広報メセナの「おひとりさま散歩」というコラムを広報チームとともに日韓交流おまつり公式HPに掲載して日本の地方や旅の風景を載せています。おまつりを見る観客の方々が「また日本に行ってみよう！」と思っていたらという気持ちで発信しています。

また、司会者として私が活動していた姿を会場で見っていた次世代の後輩としておまつり司会者を目指していたソウルおまつりの司会を務めたサオリさんや東京おまつりのサテライト会場の司会をしたユキカさんといった後輩も出てきました。二人ともオンライン開催を経験してオフラインはもっと大きなエネルギーが必要であることを実感したと思いますが、その分やりがいや楽しさがあります。こういった動きは広報メセナとしても嬉しいです。出演者も同じように日韓交流おまつりの舞台に立ちたい！そう思ってもらえるようなお祭りとして広まっていることから。

今年で17回目を迎える日韓交流おまつりin Seoulのメリットや一緒に楽しめるポイントがあれば。

同じ志を持つ仲間ともっと多くの時間を共有し、舞台を通して語り合えるということですね。

世界で類を見ない日韓交流おまつりは競争ではなく共創の場として、6万人を超える観客が集う両国の文化を知るおまつりとなり、世界的なアーティストや日韓両国でトップに輝いた芸術舞踊チームやボランティアも参加し、舞台を通して教えられる好循環を生み出す場所として成長しながら生まれる一つの表現やドラマがありますが、それが本当に面白いです。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의 장점이 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같은 뜻을 가진 동료와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무대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한일축제한마당은 경쟁이 아니라 공동 창조의 장으로써 6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모이는 양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축제입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양국에서 정상에 오른 예술 무용팀이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무대를 통해 가르침을 받고 선순환하는 곳으로서 성장하면서 생겨나는 하나하나의 표현이나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회자로서 애드리브로 관객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행사장이 하나가 되어 합성을 지를 때 등 프로로서의 클레布雷이션이 즐겁습니다. 각 무대마다 드라마가 있어서, 연령에 관계없이 주인공처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저도 온라인 공연 현장에는 없었지만, 각자가 느끼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17년 동안 한국과 일본 각 출연자나 자원봉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꾸준히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 일본에서 축제를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선 축제의 매력은 오프라인으로 관객 여러분과 서로의 문화를 바로 접하고, 시간을 함께 창조하는 즐거움을 실감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축제한마당팬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단, 지금 상



司会者としてアドリブで観客を楽しませて、会場一体で大声を出したりするとき等、プロとしてのコラボレーションが楽しいです。

各舞台のそれぞれにドラマが生まれるから年齢とも関係なく、主人公の様に思い出を作ることが出来ます。コロナにより私も今年のオンライン公演の現場にはいなかったのですが、それぞれが感じる何かがあっ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17年間の中でも日韓各出演者やボランティアスタッフ間で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はどんどん増えてきたと思います。

昨年に続き、オンラインで開催されましたが、日本 でおまつりを見ながらどんなことを考えましたか。

まずおまつりの魅力はやはりオフラインで観客の皆さんとお互いの文化に直に触れて、時間を共創する楽しさを実感していただくのが1番だと感じています。日韓交流おまつりファンの皆さんもそう思って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

ただ今の状況でプラスに捉えるとすれば、日韓交流おまつりという文化公演を世界中に知っていただけるのがオンラインの魅力ではないでしょうか。

オフラインでの魅力とオンラインでの魅力が融合すると今後の日韓交流おまつりinSeoulの魅力は倍増すると思いました。

この2年は日韓出演者、ボランティア、スタッフの安全を優先した上で何ができるか、様々な案が出てきたと思います。おまつりを映像コンテンツとして考えた場合に字幕付き公演やブース紹介、やお料理などはSNSにも残り、何度でも見られるので面白いです。

私はおまつり前にYouTubeで流されていた日韓地方自治体の方々の映像を観ていて、その土地に息づく風景や人々の姿がよく出ていて感動したのです。全てをまとめて一本のおまつり動画にした方が良いのではないかなと思うぐらい各地方の皆さんが愛情のこもった魅力あふれる映像や躍動感を届けてくださったのも印象的でした。オンラインで届いた想いを受け取って来年2022年や今後の20周年記念行事にはオフライン開催で観客の皆さんと一緒にお祭りを盛り上げたいですね。「オーレ キダリヨッチョ!(長いこと待ったでしょ!)」「ネー!(はい!)」と大歓声でスタートして大きな輪になってそれぞれ自由に踊りながらおまつりを楽しむ。来年のテーマ

황에서 좋은 점을 들자면, 한일축제한마당이라는 문화 공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이 온라인의 매력 아닐까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매력을 합하면 앞으로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의 매력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한국과 일본 출연자, 자원봉사자, 스태프의 안전을 우선하며 다음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러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영상 콘텐츠로 생각했을 때 막막 있는 공연이나 부스 소개, 요리 등은 SNS에 남아 여러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저는 한일축제한마당 행사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한국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을 보면서 그 지역의 풍경이나 사람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부 모아서 한편의 축제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각 지자체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매력 넘치는 영상으로 생동감을 전해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받은 마음을 2022년 축제나 앞으로 20주년 기념행사 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여 관객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라는 함성으로 시작해서, 큰 원을 그리며 각자 자유롭게 춤 추며 축제를 즐기시다. 내년 테마는 '다 함께 춤춰요'가 되면 좋겠네요.

앞으로 개인적인 목표나 축제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일축제한마당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오래 기다리셨죠!'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통신판매 프로그램의 쇼 게스트로서 미용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 팬도 많아 여러분이 함께 즐기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의 통신판매 컬래버레이션 스테이지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인 목표는 미래를 향해 희망을 만들어 가는, 앞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예술 콘텐츠로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웃는 얼굴로 하나가 되는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에서도 탤런트로서 한국에서도 이름이 기억되는 영상 콘텐츠에 도전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は共に踊ろうになっているといいですね。

今後、個人的な目標やおまつりでやりたいことがあれば。

日韓交流おまつりについては、オフラインで「オーレキダリョッチョ!」の掛け声でスタートしたいです。

今、私は通販番組のショーゲストとして美容商品を紹介しています。韓国ドラマファンの方々も多くて、沢山の方々に楽しんでいただいています。日韓通販コラボレーションステージとか面白いかもしれませんね。

個人的な目標としては未来に向かって希望を生み出す、前を向いて生きるエネルギーを芸術コンテンツとして届けたいです。皆が笑顔で一つになるような番組、ドラマ、映画でもタレントとして韓国でも名前を記憶されるより良い世界を創ってきたいです。

2021 한일축제한마당 사진·영상 콘테스트

9월 5일 개최된 제17회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이 직접 만날 수 없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위해 ‘2021 한일축제한마당 사진·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8월 5일부터 1달간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와 관련된 추억의 사진과 영상 응모를 받았으며, 9월 5일 행사 당일 응모작이 공개되었다.

사진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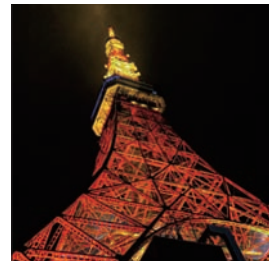
최우수상 | 김희제, 하상수
이젠 밖에서도 만나는 사이

2019년도 축제 때 만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축제를 기다리며 일본 문화에 관한 교류를 나누는 친구다.



우수상 | 임서현
인생 최대 눈 맞은 날

아오모리현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산, 우비도 소용없었고 옷이 그 세찬 눈을 다 맞았다. 하지만 눈 앞에 펼쳐진 신사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니 고진감래가 이것이구나 싶었다.



우수상 | 우고은
도쿄타워

도쿄의 수많은 건물 사이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도쿄타워를 보며 마음이 편해졌고 전망대에서 올라가 전경을 보며 도쿄에서의 추억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장려상 | 정희정
하코네

일본 하코네의 여러 명소를 필름 카메라에 담아 본 모습이다. 하코네 유모토 상점가, 하코네 신사, 아시노코(아시 호수)



장려상 | 조병훈
우연이 인연이 되다

명동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길을 가르쳐줬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장려상 | 김태훈
너를 기다리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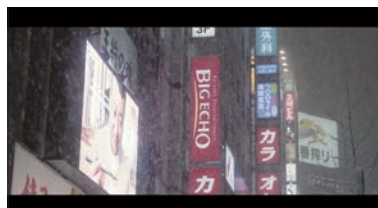
2020년 겨울, 도쿄. 눈에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찾았던 코인란도리. 세탁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드래곤볼을 읽었다.

영상 부문



최우수상 | 박규태
누드 김밥 만드는 방법

김밥집 점장으로 일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일본인 친구를 많이 사귀어 가게로 자주 데려왔었다. 그때 만들 어준 누드 김밥 과정을 일본어 자막과 함께 영상으로 만들어보았다.



우수상 | 김태훈
5일간의 홋카이도

2020년 겨울, 5일간의 홋카이도 여행. 가장 사랑했던 순간을 기록한 필름이다.



우수상 | 시무사와 치야키
그리운 한국음식



일본 요리와 술 이야기

9월 5일 온오프로 진행된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에서는 ‘일본 요리와 술 이야기’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일본의 장인이 선보이는 요리 시연과 가정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하고, 이에 어울리는 전통 술을 매치하여 한국과 일본 음식 문화의 매력을 전했다. 특히 기키사케시(噺酒師, 사케 소믈리에)인 추조 카즈오(中條一夫)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과 일본 음식 알리기 친선대사인 이시모토 준코(石元淳子) 우송정보대학 일본외식조리학부 학부장이 참여하여 일본 요리와 어울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사케와 그 매력을 소개하고, 사케 관련 퀴즈 문제를 제출했다.



무쓰햏센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사케라는 명칭을 쓰지만 일본에서는 니혼슈라 부른다. 아오모리현의 사케인 ‘무쓰햏센’은 홋카이도의 항구 도시에 양조장이 위치하며, 화이트 와인 같은 과실향이 있지만 와인처럼 신맛이 강하지 않고, 감미로움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사케다. 프랑스 요리는 버터의 기름진 맛이 특징이라 신맛이 강한 와인 과 어울리며, 일본 요리는 국물의 감칠맛이 특징이기 때문에 감칠맛 나는 사케가 어울린다

퀴즈 일본인들은 보통 사케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정답 니혼슈

이치노쿠라

미야기현의 사케 ‘이치노쿠라’는 센다이의 북방, 이와테현과 가까운 산 속에 양조장이 있다. 이 사케는 10℃ 정도인 ‘히야’ 부터 40℃가 넘는 따뜻한 ‘누루칸’까지 다양한 온도를 통해 향과 맛의 변화를 즐길 수 있다. 50℃대의 뜨거운 ‘아쓰칸’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이치노쿠라는 ‘누루칸’에 맞는 사케 콘테스트에서 최고 금상을 수상했다. 퀴즈 사케의 온도로 따뜻한 ‘누루칸’은 ‘몇 도대’인가. 정답 40℃대

구보타

니가타현의 사케 ‘구보타’는 강가의 전원 지역에 양조장이 위치해 있다. 사케의 주원료는 물과 쌀인데 니가타는 눈이 많아 수량이 풍부하고 쌀이 많이 재배되어 사케 양조장이 많다. 사케를 만들기 위

해서는 누룩균과 효모균도 필요한데, 누룩균은 쌀의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고 효모균은 그 당분을 알코올과 탄산 가스로 바꿔준다. 퀴즈 일본에는 47개 도도부현이 있는데, 사케 양조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정답 니가타현

요코야마

나가사키현의 사케 ‘요코야마’는 대마도와 규슈 사이에 있는 이키시마 섬에 양조장이 있다. 한국의 약주와 일본의 사케는 누룩균과 효모균을 사용한 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향이나 맛도 다르다. 이 사케는 백포도와 같은 향과 단맛이 특징으로 차갑게 마시는 게 좋다

퀴즈 술을 만들 때 효모균이 알코올과 함께 만드는 가스는.

정답 탄산가스 혹은 이산화탄소

요코야마 초카라

마지막은 앞서 소개한 ‘요코야마’의 ‘초카라’라는 드라이 사케다. 효모균은 당분을 알코올로 바꾸기 때문에 같은 원료로 당분이 많은 단맛의 ‘아마쿠치’ 사케 뿐만 아니라 당분이 적은 드라이한 ‘가라쿠치’ 사케도 만들 수 있다. 이 드라이한 ‘가라쿠치’ 사케는 스시와 사시미에 특히 잘 어울린다.

퀴즈 단맛의 ‘아마쿠치’ 사케와 드라이한 ‘가라쿠치’ 사케의 차이를 결정하는 성분은. 정답 당분



구름 위의 갤러리

고치에서 만나는 구마 겐고의 건축 작품 구름 위의 갤러리

고치(高知)는 일본 시코쿠(四国) 섬의 4개 현 중 최남단 지역으로 제주도와 비슷한 온화한 기후다. 산지가 80%에 달하지만, 태평양과 넓게 접해있어 수산업이 발달했으며

서핑 등 해양 스포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일본 근대화의 위인인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의 출신지로도 유명하며 일본 근대 역사 작품의 배경지로 자주 등장한다.



유스하라정 풍경



유스하라정 풍경

고치현 서부의 산골짜기 마을 유스하라정(梶原町)은 시코쿠 카르스트 고원이 위치한 곳으로 일본 3대 카르스트 지형 중 한 곳이다. 면적의 90% 이상을 삼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산품인 삼나무를 짜 맞춘 일본의 전통 건축 기술을 사용한 건축물이 많다. 또한 도쿄올림픽 경기장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구마 겐고(隈研吾)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스하라좌(ゆすはら座)는 약 7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목조 초가지붕 주택으로 구마 겐고가 유스하라정에서 건축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구름 위의 갤러리

유스하라정에는 구름 위의 호텔(雲の上のホテル), 구름 위의 갤러리(雲の上のギャラリー), 구름 위의 도서관(雲の上の図書館), 구마 겐고의 작은 박물관(隈研吾の小さなミュージ엄) 등 구마 겐고가 설계한 건축물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의 종합 청사와 복지시설 역시 구마 겐고의 작품이다. 작품의 중심이 되는 구름 위에 호텔은 온천과



구름 위의 갤러리



구마 겐고의 작은 박물관



구름 위의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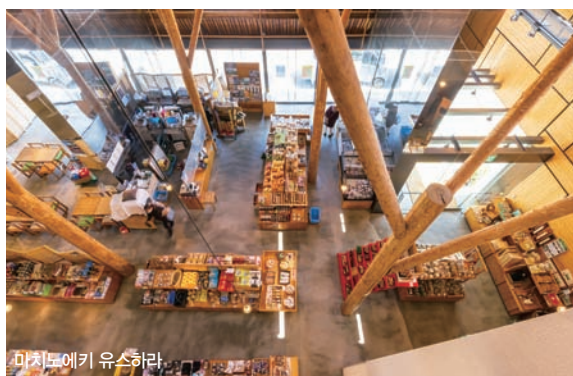
숙박시설을 완비하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구마 겐고의 작품을 감상, 체험할 수 있다. 숙박하지 않더라도 부대시설인 카페, 갤러리,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다.

마치노에키 유스하라

유스하라정 마을 주민의 만남의 장소이자 여행객의 휴게소인 마치노에키(まちなの駅) 유스하라(ゆすはら) 역시 구마 겐고의 설계로 건축되었다. 마을의 전통인 초가지붕을 건축에 녹인 독특한 디자인으로 시설 내에는 구마 겐고 건축의 특징인 나무 기둥을 엮갈려 만든 구조로 되어 있다. 숲을 콘셉트로 설계된 이 건축물은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통기성과 단열성을 높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갖추고 있다. 주민, 관광객의 휴식 장소로서 정보 교류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며, 숙박시설도 갖춘 구마 겐고의 건축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마치노에키 유스하라



마치노에키 유스하라

구름 위의 도서관

구름 위의 도서관이라는 별칭으로 사랑받고 있는 마을의 도서관인 유스하라정립 도서관(榑原町立図書館) 역시 구마 겐고의 작품이다. 유스하라 마을이 목표하는 ‘사람



구름 위의 도서관



구름위의 도서관



구름위의 도서관

과 자연이 공생하며 빛나는 유스하라 구상'의 핵심 시설로서 2017년 건축된 도서관이다. 건축에는 유스하라 목재를 사용했으며 약 1100년의 독자적인 문화를 보존, 계승하여 정보 발신지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에는 클라이밍 시설이나 카페도 갖추고 있어 지식의 거점이자 배움, 정보 교류의 장소로 다양한 사람과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여유로운 공간이다.



구름위의 도서관



©DBOX

구마 겐고

隈研吾, 1954~

구마 겐고는 작고, 낮고, 느린 삼저주의와 지역의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장소의 관계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다. '약한 것은 변화에 잘 적응하고 그 약함 때문에 살아남는다'는 생각에서 나무 같은 주로 약한 소재를 건축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생으로 고양이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수의사가 꿈이었다. 하지만 디자인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건축에 흥미를 갖게 되어 도쿄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호세이대학(法政大学),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学), 미국 일리노이대학 등에서 학생을 가르쳤으며 지금은 도쿄대학 특별교수, 오카야마대학 특별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쿄 국립경기장(国立競技場, 도쿄, 2019), 나가사키 미술관(長崎美術館, 2005), 산토리 미술관(サントリー美術館, 도쿄, 2007), 네즈 미술관(根津美術館, 도쿄, 2009) 구름 위의 갤러리(雲の上のギャラリー, 고치, 2010), 스타벅스 다자이후 지점(スターバックスコーヒー 太宰府天宮, 후쿠오카, 2011),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浅草文化観光センター, 도쿄, 2012), 써니 힐즈 미나미야오야마(サニーヒルズ南青山店, 도쿄, 2013)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작품이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NHN 춘천 데이터센터, 경주 국제박람회 기념관, 기장 아트뮤지엄에서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다.



가을의 미각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 ‘스포츠의 가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가을은 식욕의 계절’이 아닐까요? 가을에는 맛있는 식재료가 많습니다. 햅쌀이 나오고 채소는 근채류와 버섯류가 제철을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가을의 미각’이라는 주제로 가을이 제철인 채소를 사용한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메인 요리는 ‘닭고기 완자와 버섯 미조레 나베’입니다. ‘미조레’는 ‘진눈깨비’라는 뜻인데, 일본 요리에서 ‘미조레’라고 하면 ‘간 무’를 의미합니다. 무의 흰 색감을 살리기 위해 간장은 향을 내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버섯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드시고 싶은 것을 선택해주세요. 닭고기 완자의 숨겨진 맛은 ‘미소’의 감칠맛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추운 날에 드셨으면 하는 요리입니다.

곁들임 요리는 ‘가을 채소 깨 마요네즈 샐러드’입니다. 가을에 맛있는 우엉, 연근, 당근 등을 깨 마요네즈로 버무림

니다. 우엉은 산화하기 쉬운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자른 단면이 공기에 닿으면 색이 변합니다. 자른 우엉은 물에 담갔다 2, 3분 후에 체에 발쳐 사용하는데 장시간 물에 담그거나, 햇볕을 쬐면 향이나 맛이 빠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엉은 섬유 결을 따라서 자르면 식감이 좋아집니다. 또한, 우엉이나 연근은 식초 물에 데치면 식감이 아삭해집니다. 깨와 마요네즈 무침 양념은 재료를 가리지 않고 만능 무침 양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레몬 조림’은 치자 열매로 색감을 살려 데친 후, 시럽으로 조립니다. 레몬은 가열하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시럽이 식은 후에 넣습니다. 고구마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과 칼슘, 칼륨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미백 효과와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요리를 소개하니 꼭 만들어보세요.

집필 시마무라 코타(島村公大)

협력 나카무라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닭고기 완자와 버섯 미조레 나베



【재료】

만가닥 버섯 1/2팩 | 새송이 버섯 1개 | 당근 50g | 썩갠 10줄기
간 무 300g | 황유자 1/2개
〈닭고기 완자〉 간 닭다리 살 200g | 달걀물 1/2개분 | 미소 10g
간장 1/2작은술
〈나베다시〉 다시 400cc | 간장 15cc | 미림 15cc | 소금 1/2작은술

【조리법】

- ① 만가닥 버섯, 새송이 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② 당근은 1cm 두께의 원형으로 썰고, 단풍 모양틀로 찍는다.
- ③ 썩갠은 잎만 손으로 뜯는다.
- ④ 황유자는 채 썬다.
- ⑤ 닭고기 완자의 재료와 조미료를 모두 섞는다.
- ⑥ 냄비에 나베다시의 다시, 조미료를 넣고 한소끔 끓인 뒤,
⑤를 손으로 쥐고 스푼으로 떠서 동그랗게 형태를 만들어 넣는다.
- ⑦ ⑥의 완자가 익으면 ①, ②, ③과 간 무를 넣는다.
- ⑧ 채소가 익으면 완성. 기호에 따라 채 썬 유자를 곁들인다.



가을 채소 개 마요네즈 샐러드



【재료】

우엉 30g | 오이 20g | 당근 30g | 연근 20g | 간 깨 1작은술
〈개 마요네즈〉 마요네즈 3큰술 | 깨 페이스트 1큰술
간장 1큰술 | 니키리 미림 1큰술
※니키리 미림은 알코올을 날린 미림

【조리법】

- ① 우엉은 섬유 결을 따라 채 썰어 물에 담근다.
- ②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은행잎 모양으로 썬다.
- ③ 우엉, 연근은 각각 식초 물에 데쳐 체에 발친다.
- ④ 당근도 껍질을 벗겨 채 썰어 데친 후, 체에 발친다.
- ⑤ 오이는 채 썬다.
- ⑥ 개 마요네즈 조미료를 볼에 넣고 섞는다.
- ⑦ 채소의 물기를 제거하고, ⑥으로 버무린다.
그릇에 담고, 간 깨를 뿌려 완성.



고구마 레몬 조림



【재료】

〈고구마 레몬 조림〉 고구마 1개 (약150g) | 레몬 1/3개 | 치자 열매 2개분
〈시럽〉 물 150cc | 설탕 120g

【조리법】

- ① 고구마를 1cm 두께의 원형으로 썰고 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한다.
- ② 냄비에 ①, 물, 치자열매를 으개서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데친다.
- ③ 부드러워지면 1분 정도 흐르는 물에 두어, 여분의 치자 색소를 제거한다.
- ④ 냄비에 물, 설탕을 넣고 가열해 설탕을 녹인다.
- ⑤ 설탕이 녹으면 ③을 넣고 끓인다.
- ⑥ 냄비째로 얼음물에 식힌다.
- ⑦ 식으면 등갈게 슬라이스 한 레몬을 넣는다.
- ⑧ 냉장고에서 반나절에서 1일 정도 식힌다.
- ⑨ 그릇에 담아 완성.





고우리 대교

추억의 드라마 속 한 장면 ‘괜찮아 사랑이야’ 오키나와

오키나와(沖縄)는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화산섬이다.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오키나와는 연평균 22℃의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여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다. 오키나와는 본 섬과 이시가키지마(石垣島), 미야코지마(宮古島), 이리모테지마(西表島) 등 주변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섬은 다시 남부, 중부, 북부로 나뉘며 대부분의 인구가 남부에 밀집되어 있다.

오키나와는 일본이면서 일본과는 색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 귀속되기 전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

된 국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오키나와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산호초 가득한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와 오키나와만의 독특한 먹거리, 류큐 왕국의 전통 음악, 춤 등 휴양지면서 도시 문화가 발달한 독특한 분위기의 오키나와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는 일본은 물론 한국의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작품의 배경으로 소개되었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추성훈 씨





고우리지마



고우리지마 해수욕장



고우리 대교

와 그의 딸 추사랑 양이 오키나와로 여행을 떠난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휴양지이자 가족 관광지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또 이번에 소개할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는 주인공 커플이 여행을 떠난 곳으로 소개되며 커플 여행지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렌터카를 타고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해안도로를 달리며 작품 속의 배경지를 찾아가 보았다.

고우리지마

오키나와에는 시원한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가 많은데 그중 하나인 오키나와 북부의 작은 섬 고우리지마(古宇利島)를 연결하는 고우리 대교(古宇利大橋)는 오키나와 드라이브 코스의 백미다. 고우리 대교는 약 2km의 거리로 오키나와에서 가장 긴 다리로서 창밖에 펼쳐지는 에

메랄드그린의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고우리지마 주변의 바다는 오키나와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투명도를 자랑하며 다양한 빛깔을 만들어 낸다. 눈부신 산호모래가 깔려 있는 해수욕장은 얇고 깨끗해 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는 빨간 오픈카를 타고 이곳을 달리며 오키나와 여행을 시작한다.

만자모

다음으로 찾은 곳은 작품 속에서 관광지를 방문한 주인공이 고급 리조트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만자모(万座毛), 코끼리 코 모양의 바위가 인상적인 해안 절벽으로 오키나와 중부 서해안에 위치한 국립 자연공원이다. 18세기 초 류큐 왕이 이곳에 들렀을 때 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초





만자모



만자모 천연잔디



만자 비치 리조트



만자 비치

원이라고 말한 것이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이름 그대로 천연 잔디가 넓게 깔려 있으며 이 지역의 식물 군락은 오키나와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또 용기 산호초가 만들어 낸 단애 절벽(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바위 모양이 코끼리 얼굴과 닮아 재미있는 풍경을 만들어 낸다. 맞은편 만자 해변의 풍경은 오키나와의 절경 중 하나다. 만자모 북쪽의 해변인 만자 비치(万座ビーチ)에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고급 리조트가 들어서 있고 바닷가에서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아메리칸 빌리지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며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오키나와의 서쪽 해안을 찾았다. 이곳에는 작품 속 주인공이 데이트를 즐기던 해변과 아메리칸 빌리지(アメリカンビレッジ



선셋 비치





아메리칸 빌리지



아메리칸 빌리지

ㄱ)가 있다. 아메리칸 빌리지는 나하(那覇) 공항에서 자동차로 40분 나하 시내에서 버스로 50분 정도 걸리는 오키나와 본 섬 중남부의 차탄정 미하마(北谷町美浜) 지역의 해변 공원이다. 원래 미군기지였던 곳을 재개발해서 도시형 리조트로 탈바꿈했으며 주변에는 야구장, 섀넬 비치가 있다. 해변에서 바라보는 석양의 모습은 오키나와에서도 유명하여 일본과 한국의 각종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의 배경지로 사용되었다. 여름에는 시포트 차탄 카니발(シーポートちやたんカーニバル)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리며 겨울에는 일루미네이션으로 화려하게 꾸며진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찾은 드라마 주인공처럼 작품의 배경지를 천천히 둘러보면 따뜻한 오키나와의 풍경에 힐링이 될 것이다.



관찰의 사랑이야기

2014년 7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방영한 조인성 씨와 공효진 씨가 주인공인 SBS 수목 드라마다. '그들이 사는 세상', '빠담빠담',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등에 이어 김규태 감독과 노희경 작가가 네 번째로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각자 마음의 상처를 가진 남녀가 만나 사랑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감싸 안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 드라마다. 총 16회 방영했으며 오키나와의 여행 장면은 작중 8회에서 등장한다.





도쿄 전망(후문기 힐즈)

도쿄의 하늘을 바꾼 마천루에서 도쿄의 새로운 전망을 만나다

2012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634m의 전파 탑인 도쿄 스카이트리(東京スカイツリー) 등장으로 도쿄(東京)의 하늘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어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추어

새로운 시설이 생겨나고, 도쿄의 수많은 전망대, 타워 등이 리뉴얼되며 도쿄의 하늘은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 도쿄의 새로운 마천루, 전망대에서 달라진 도쿄의 하늘과 풍경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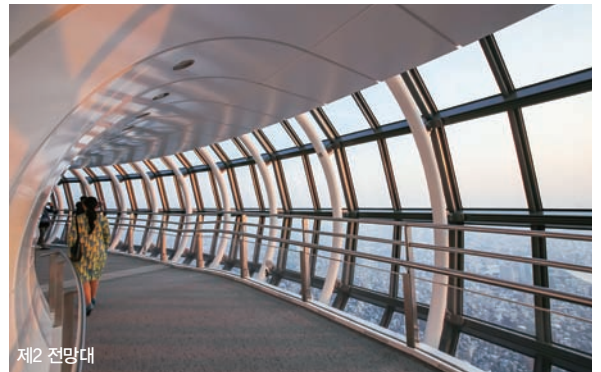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 스카이트리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에 세워진 전파 탑으로 높이 610.58m로 계획되었으나 2009년 10월, 높이 634m로 설계가 변경되었다. 캐나다의 CN 타워와 중국의 광저우 타워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립식 전파탑이 되었다. 2012년 2월 29일 완공되었으며 도쿄 타워를 대신하여 일본 디지털 방송의 전파 타워로 사용되고 있다. 도쿄 스카이트리의 전망대는 350m 높이의 제1 전망대



제1 전망대 전망



제2 전망대



도쿄 스카이라인



불을 밝히는 도쿄 스카이라인

(TEMBO DECK)와 450m 높이의 제2 전망대(TEMBO GALLERIA)로 나뉜다. 제1 전망대에서는 도쿄 시내가 한 눈에 들어오며 제2 전망대에서는 구름 위나 비행기에서 도쿄 도심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높다. 타워 저

층에는 도부 철도의 쇼핑 시설이 있으며 도쿄 메트로 오시아게(押上)역, 도부 철도 도쿄 스카이트리역과 바로 연결된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저녁이 되면 다양한 색으로 불을 밝힌다.





스카이 서커스 전망대

스카이 서커스 선샤인 60 전망대

스카이 서커스 선샤인 60 전망대(SKY CIRCUS サンシャイン60展望台)는 도쿄 북부의 중심 도시인 이케부쿠로(池袋)에 있는 높이 226.3m의 초고층 복합 쇼핑몰로서 한국의 63빌딩이 생기기 이전 동양의 최고 층 건물이었다. 1978년 4월 6일 오픈했으며 건물 안에는 프린스 호텔, 월드 임포트마트, 문화회관, 수족관 등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건물의 60층에는 서커스를 테마로 한 전망대

가 있으며 2016년 4월 21일 리뉴얼 오픈했다. 보고, 만지고 느끼는 등 다양한 감성을 자극하는 7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거울의 방, 3D 매핑, VR 체험 등 전망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타워 스카이라운지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타워 스카이라운지(恵比寿ガーデンプレイスタワー スカイラウンジ)는 에비스역 남쪽 출구에서



스카이 서커스 선샤인 60



스카이 서커스 전망(도쿄 스카이 트리 방면)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타워 스카이라운지



스카이라운지 전망

에스컬레이터가 이어진 스카이워크를 지나면 등장하는 도심 속 넓은 정원으로 붉은 벽돌의 유럽풍 건물과 39층의 타워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삿포로 맥주 공장을 재개발하여 만든 곳으로 1994년 오픈했다. 높이 167미터의 오피스 빌딩으로 38~39층에 레스토랑 거리와 전망대(스카이라운지, スカ이라ウンジ)가 있으며 2016년 10월 새롭게 리뉴얼했다.

도쿄 타워와 도쿄 스카이트리, 롯폰기 힐즈(六本木ヒルズ)가 한 프레임에 담기며 그리 높지 않아 도쿄 타워와 동일

선상에서 도쿄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渋谷スクランブルスクエア)는 시부야역 주변 재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건물 중 가장 높은 건물로 높이 230m의 고층 빌딩이다. 동관, 중앙관, 서관으로 총 3개의 건물이 지어질 예정으로 동관은 2019년 11월 1일 오픈했으며, 중앙관과 서관은 2027년 완성될 예정



롯데기, 도쿄타워, 도쿄 스카이트리가 한 눈에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시부야 스카이 갤러리



옥상의 전망 회랑



헬기 착륙장

이다. 47층 건물에는 도큐 백화점과 오피스가 들어서 있고 45층부터는 전망 회랑인 시부야 스카이 스카이 갤러리(SHIBUYA SKY - SKY GALLERY)가 들어서 있다. 총 3층으로 구성된 전망대에서는 도쿄 중심에서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옥상이 개방되어 있어 도쿄의 바람을 맞으며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여기서 찍은 사진이 인스타

에서 화제가 되며 도쿄의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면서 도쿄를 대표하는 전망대가 되고 있다. 시부야는 재개발로 새로운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옆 건물인 시부야 후쿠라스(渋谷フクラス) 옥상 정원과 시부야 히카리에 11층 스카이 로비(渋谷ヒカリエ スカイロビー)에서는 무료로 시부야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오이라세계류

초록이 가득한 아오모리의 숲을 걷다

아오모리(青森)는 일본 동북(東北)의 최북부 지역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오우산맥(奥羽山脈)을 중앙에 두고 동서 문화가 크게 다르다. 핫코다산(八甲田山),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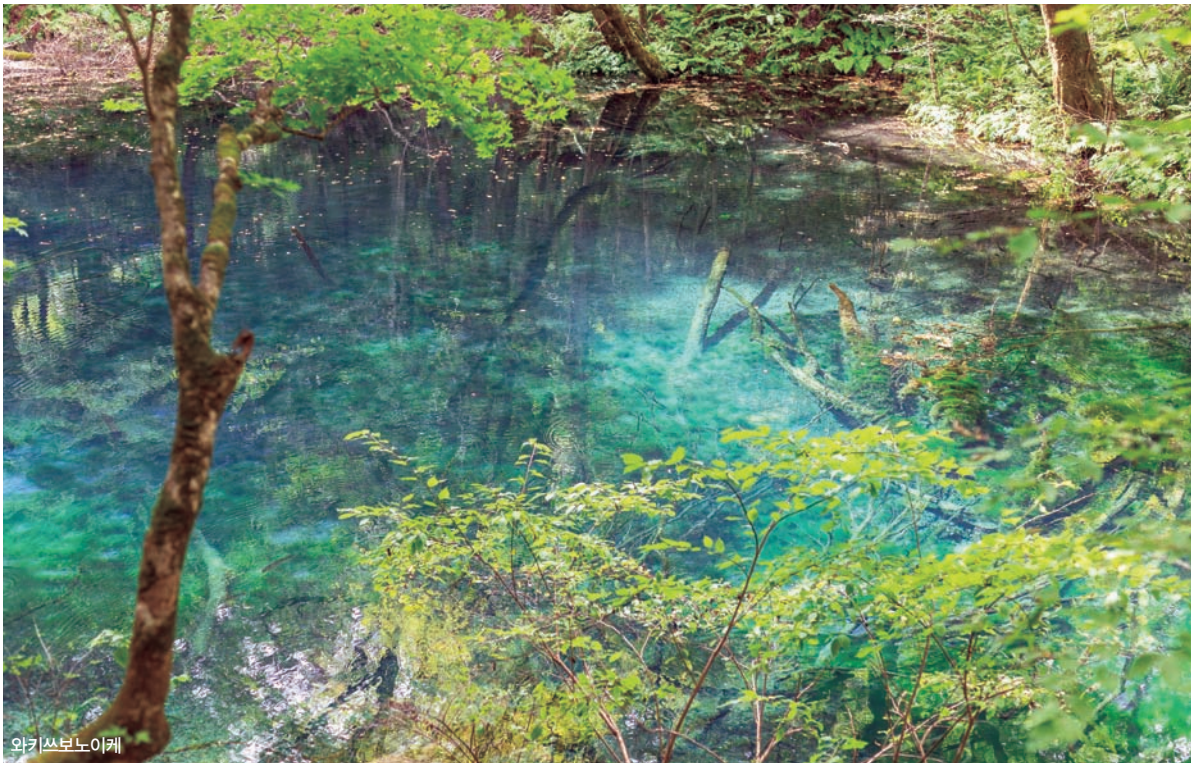
라카미 산지(白神山地), 오이라세계류(奥入瀬溪流) 등 아름다운 자연의 트레킹 명소와 따뜻한 온천이 많다. 홋카이도와 가까운 일본 북쪽에 위치하여 여름에도 비교적 시



시라카미산지 산책길



아오아케



와키쓰보노이케

원한 편으로 계곡이 많아 피서를 즐기는 관광객이 많다. 여름의 따뜻한 햇살과 초록이 가득한 아오모리의 자연 속을 걸어보았다.

시라카미 산지

시라카미 산지는 일본의 북부 산악지대로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신생대 마이오

세 때의 해저 퇴적층이 용기하여 만들어졌으며, 산지 면적은 169km²로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秋田県)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시라카미 산지는 해마다 조금씩 용기하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활발하여 계곡이 깊고 폭포와 호수가 많다. 그 중 33개의 호수와 높이 있는 주니코

(十二湖), 안몬노타키(暗門の滝) 등이 유명하며 해마다 수십 만 명의 관광객이 트레킹을 즐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입구에서 길을 따라 너도밤나무 숲을 10여 분쯤 걸으니 지하수 샘솟는 소리가 마치 흐르는 계곡 물소리처럼 들려온다. 와키쓰보노이케(沸壺の池)의 아름다움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다시 향긋한 향나무 잎의 향기에 이끌려 초록의 숲 사이로 비추는 햇살을 따라 걷다 보면 포근한 밤나무 조각이 가득 깔린 너도밤나무 숲에 이르게 된다.

폭신폭신 너도밤나무 산책길을 걷다 보면 관광객의 탄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일본어는 잘 몰라도 ‘스고이’ ‘스게’ 등 애니메이션에서 들던 단어가 들리는 걸 보면 뭔가 놀



밤나무 조각



너도밤나무 숲



나무의 소리 듣기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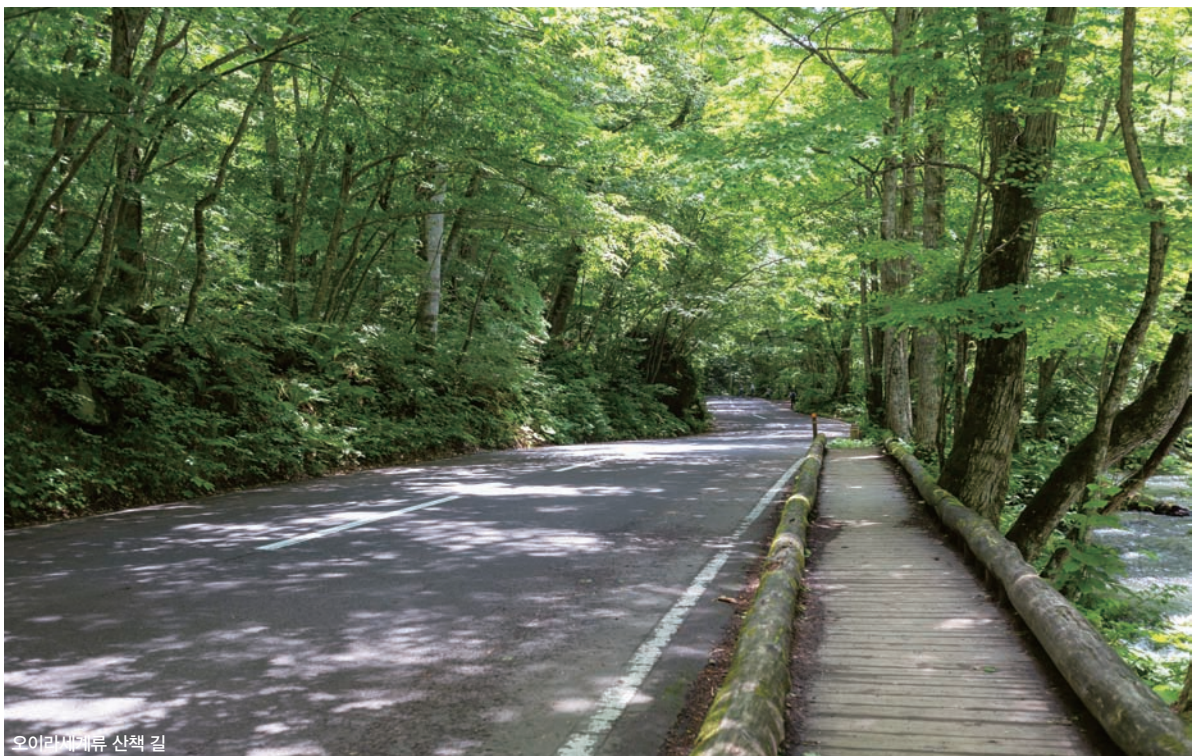
라운 풍경이 펼쳐질 것 같다. 소리를 따라 길을 내려가면 쪽빛보다 더 푸르른 호수를 만나게 되고 방금 들린 탄성 소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파란 잉크를 떨어뜨린 듯 새파랗게 보이는 ‘아오이케(靑池)’. 너도밤나무 고목의 가지 사이로 내려오는 햇살이 더욱 파랗게 물들이며 신비로운 풍경에 눈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든다. 물빛이 파란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더욱 신비한 느낌이다.



오이라세계류 계곡

오이라세계류

오이라세계류는 다양한 종류의 폭포와 기암, 뛰어난 경치를 품은 채, 도와다코(十和田湖)부터 약 14km에 걸쳐 여울, 심연, 급류, 완류 등 다양하게 변화하며 흐르면서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맑은 계류는 나뭇가지와 잎 사이로 내리쏟아지는 햇살로 인해 더욱 빛나 보인다. 계류 변에는 산책로가 잘 닦여 있고, 높낮이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트레킹 초보자도 안



오이라세계류 산책 길



오이라세계류의 폭포

심하고 즐길 수 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 새의 지저귐과 벌레 소리, 나무와 땅의 향에 기분이 저절로 좋아진다.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계류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몸과 기분이 힐링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이라세계류에서는 300종 이상의 다양한 이끼를 만날 수 있다. 천연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와다호가 오이라세계류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을 조절하여, 일정한 수분 공급과 습기가 생식 조건에 꼭 필요한 이끼에 최적의 환

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푸르른 이끼가 주변 일대를 덮은 모습은 마치 윤기가 흐르는 부드러운 카펫과도 같다. 조용한 계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이라세계류의 인기 장소인 조시오타키(銚子大滝)가 모습을 드러낸다. 오이라세계류에는 크고 작은 폭포가 있지만, 그중에서 최고의 크기를 자랑하는, 오이라세계류의 본류가 흐르는 유일한 폭포다. 높이 약 7m, 폭 약 20m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양과 소리는 언제 들어도 시원하다.



이끼 살펴보기 체험



이끼가 깎바위



조시오타키



조시오타키



도와다코

조금 더 계곡 상류를 따라가다 보면 탁 트인 풍경과 함께 도와다코를 만나게 된다. 도와다코는 약 2,000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해발 400m에 있는 이중 칼데라 호수다. 신록은 5월~6월, 단풍은 10월 중순에 물들기 시작한다. 호수를 일주하는 유람선이 다니며 호수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숨어있는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할 수 있다.





열차와 바닷가 풍경 야마구치의 미치노에키

야마구치(山口)는 일본 혼슈(本州) 서쪽 끝에 위치하며, 삼면이 바다로서 동서로 주고쿠(中国) 산지가 뻗어 있다. 약 1,500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의 바다는 세토내해(瀬戸内

海)의 아름다운 섬과 기타나가토(北長門) 해안국정공원의 거친 침식 해안의 멋진 풍경을 담고 있다. 간문교(関門橋)로 규슈와 연결되어 있어 현의 서쪽은 규슈의 동쪽으로 히



기타우라기아도 호우호쿠 ©北浦街道 豊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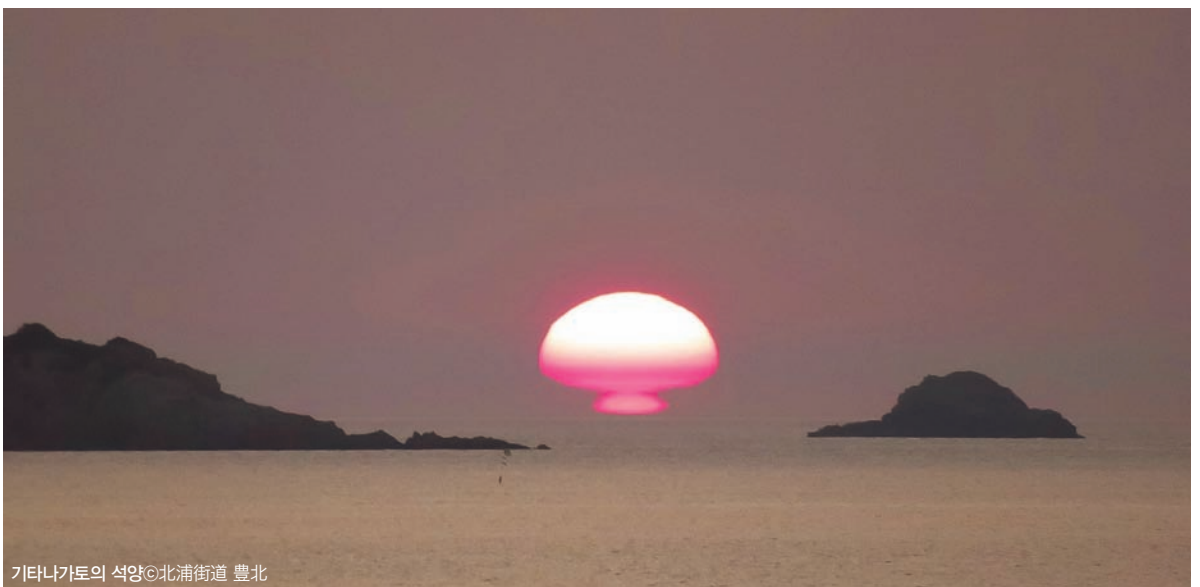
석양을 담은 홋문 ©北浦街道 豊北



기타우라키마도 200호선 ©北浦街道 豊北

로시마(広島)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비행기로 1시간 정도의 가까운 거리다. 도자기로 유명한 옛 성곽 마을인 하키(萩), 해산물로 유명한 시모노세키(下関), 계

곡이 흐르는 온천마을 나가토유모토온천(長門湯本温泉) 등 소소한 관광지를 찾을 수 있다.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따라 야마구치의 고속도로 휴게소 미치노에키를 찾아보았다.



기타나가토의 석양©北浦街道 豊北



초몬코 군노다이치 ©長門峡 くんくのだい



SL 0마구치호 ©長門峡 くんくのだい

기타우라카이도 호우호쿠

기타우라카이도 호우호쿠(北浦街道 豊北)는 기타나가토 해안국정공원(北長門海岸国定公園)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해안국도 191호를 따라가다 보면 수평선과 함께 쓰노시마 대교(角島大橋)가 멀리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미치노에키다. 기타나가토의 석양을 모델로 만든 지역의 마스코트인 홋쿤(ほっくん)이 반겨주며 호우호쿠(豊北) 지역의 신선한 해산물과 막 수확한 과일을 맛볼 수 있다. 일본의 멋진 드

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다양한 CF의 배경에 등장한 쓰노시마대교(角島大橋)와 가까워 함께 둘러보면 좋다.

초몬코 군쿠노다이치

초몬코 군쿠노다이치(長門峡 くんくのだい)는 일본에서 지정한 명승지인 초몬코(長門峡) 입구에 있는 미치노에키다. 초몬코는 아부강(阿武川)이 흐르는 5km 정도의 협곡으로 물이 맑고 단풍 명소로 유명하다. 강을 따라 산책로



초몬코 ©長門峡 くんくのだい



하기 산산산미 ©萩・さんさん三見



하기 산산산미 ©萩・さんさん三見

가 잘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증기 기관차인 SL 야마구치호(SL山口号)가 다니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열차 팬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관내에서는 SL 야마구치호의 운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기 산산산미

하기는 야마구치 북부의 항구 마을로 과거 하기성(萩城)을 중심으로 번영하던 성하마을(城下町)이다. 지금은 성터만이 남아 있지만 그 주변으로 상점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 당시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기야키(萩焼)라는 도자기 명소로 유명하며 고양이도 많아 고양이 마을로도 불린다. 하기 산산산미(萩・さんさん三見)는 하기의 서쪽 언덕에 있는 미치노에키로서 작은 미치노에키지만 열차와 함께 멋진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에겐 인기가 높다.

하기 시마토

하기 시마토(萩シーマート)는 하기의 동쪽에 위치한 미치노



하가 시마토 ©萩しーまーと

에키로 일본 전국에 6곳이 있는 미치노에키(全国モデル道の駅) 모델 중 한 곳이다. 삼나무 원목을 구조재로 사용하고 다른 부분도 목조를 기본으로 한 친환경 건물이다. 어협 협동조합, 현지 생산자가 함께 운영하는 임해 신선 시장 겸 미치노에키로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아 운송 비용 없이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 식자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내부는 옛 공설시장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하기의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완비되어 있다.

미치노에키란?

道の駅

미치노에키(道の駅)는 일본의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자가 제휴하여 설치한,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의해 등록된 상업시설, 체험시설, 지역부흥시설 등이 하나가 된 도로 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며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등 길이 나 있는 곳의 휴게시설을 미치노에키라 부른다. 1991년 테스트로 시작 1993년에 정식 등록되었으며, 도로 이용자를 위한 휴게 기능(Refresh), 도로 이용자와 해당 지역의 주만을 위한 정보 발신 기능(Information),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개발, 판매와 함께 지역 활성화 기능(Community) 등 3가지 기능을 담당하며 일본 전국에 1,193곳이 등록되어 있다(2021년 9월 기준). 또한 지역의 매력을 잘 전달하면서 운영, 관리가 잘 되는 일본 전국에서 6곳의 미치노에키를 선정하여 전국 모델 미치노에키(全国モデル道の駅)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가 시마토 신선시장



신선한 해산물



하가 시마토 레스토랑



해산을 덮밥



영화홍보전단 일한비교전을 마치고

8월 2일(월)부터 14일(토)까지 2주 동안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에서 개최된 '영화홍보전단 일한비교전'이 막을 내렸다.

영화홍보전단은 영화의 광고와 안내를 위한 홍보물로 영화관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낱장 혹은 2~3장 분량의 광고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A4혹은 B5사이즈로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는 2쪽, 경우에 따라서는 4~8쪽 분량으로 만들어진다. 제한된 지면 안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매력적인 줄거리와 함께 세련되고 흡입력 있는 디자인이 이에 한몫하게 된다.

영화홍보전단 일한비교전이란 하나의 영화에 대해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어 전단지와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전단지, 두 종류를 하나의 액자에 넣어 비교 감상하는 전시회로, 같은 영화라도 일본과 한국에서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양국의 디자인 감각과 마케팅 수법의 차이 등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본영화 약 40편, 한국영화 약 30편이 비교 전시되었다. 비교 감상 포인트는 이미지, 제목(양국에서의 제목이 다른 경우가 있음) 등이다. 예를 들면 일본영화 중 세계적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裕和) 감독의 칸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어느 가족'은 한국에서 원제와 다른 제목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제인 '도둑 가족(万引き家族)'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원제가 갖는 뉘앙스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딜레마로 인해 조금 다른 제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전단에는 '흠친 것은 기즈나(絆)였다'라는 카피가 사용되었는데, 한국 전단에서는 '그들이 흠친 것은 함께 한 시간이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기즈나'라



는 단어가 '깊은 정', '유대감', '인연' 등의 뜻을 담고 있지만, 한국어에는 완벽하게 부합하는 단어가 없어 번역이 까다로운 단어 중 하나이다. 이에 '기즈나'를 '함께 한 시간'이라고 의역한 부분은 영화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한 뛰어난 해석력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 한국 영화 '곡성'의 경우, 양측 모두 같은 기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전단에는 주요 배역 중 한 사람인 일본배우 구니무라 준(國村 準)이 등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전단에는 그의

모습이 빠져있다. 이는 약간의 마케팅적 요소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단에만 그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일본 극장 업계에서 메이저 영화로 분류되지 않는 한국 영화이기에 일본의 실력과 유명 배우의 이미지를 넣음으로써 관객 동원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반면, 한국 전단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한국에서 그리 인지도가 높은 배우도 아닌데다가, 그의 충격적인 등장이 영화의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굳이 이미지 컷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같은 영화라도 양국에서 만들어지는 전단은 다양한 이유로 이미지, 제목, 카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하며 감상한다면 더욱 흥미로워질 것이다.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 양국은 서로 수 백 편의 상대국 영화를 수입, 개봉하여 영화를 통한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번 전시회도 기획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새로운 영화로 꾸며진 영화홍보전단 비교전시회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성명여자중학교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제14회 전국학생 일본어 연극발표대회를 마치고

9월 11일(토), 제14회 전국학생 일본어 연극발표대회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주최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었다.

이 대회는 일본어 연극을 통해 학생들이 일본어 학습과 일본 문화에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일본어 교육 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열리고 있다.

본선에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5개, 고교 10개교가 참가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품과 의상 준비는 물론 영상 편집까지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정성스럽게 만든 무대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쿠로노 아

츠코(黒野敦子) 일본어 교육 어드바이저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도 높은 완성도와 탄탄한 스토리 라인, 작품에 녹인 메시지, 전달력 좋은 연기와 대사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제14회 전국학생 일본어 연극발표대회는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본 무대 영상뿐 아니라 학생의 메이킹 영상도 엿볼 수 있어 그 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유튜브 라이브를 본 시청자는 “많은 학교 학생의 다양한 연극을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연극을 통해 학생들이 일본어 실력도 갖추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행사였다”,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준비한 학생의 연극을 보며 힘이 났다”등 많은 코멘트를 남겼다.

제14회 전국학생 일본어 연극발표대회 결과

부 분	상	수상자
중등부	대 상	성명여자중학교
	금 상	어람중학교2
	은 상	서문여자중학교
	동 상	어람중학교1
		매현중학교
고등부	대 상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금 상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은 상	한국관광고등학교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수원여자고등학교
	동 상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서령고등학교
		나주고등학교



일본국제교류기금 순회전 '인형-예술과 아름다움의 일본인형'전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일본국제교류기금 주최로 '인형-예술과 아름다움의 일본인형' 전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는 오랜 시간 큰 인기를 얻어온 일본국제교류기금 순회전 시리즈 '사랑과 기원의 표현-일본인형전'의 뒤를 잇는 기획으로 총 67점의 엄선된 인형을 '셋쿠인형(節句人形-단오 등 세시에 관련된 인형)', '미술인형', '서민의 인형', '인형문화의 확산'이라는 4파트로 나누어 소개한다.

일본인형의 원형이라 여겨지는 가타시로(形代 : 토속 신앙에서 혼령을 깃들게 하는 인형)와 아мага쓰(天児 : 유아용 액뎀 인형)부터 전국 각지의 풍토나 이야기가 반영된 향토 인형, 더 나아가 일본에서 완구로서 사랑 받고 있는 '웃 갈아입히기 인형',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피규어까지 일본의 인형 문화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무료관람

기간 10월 1일(금)~28일(목) 10:00~17:30(토, 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관람 방법 이메일 예약 신청, 시간 지정 사전예약제

① 이메일 제목에 '인형-예술과 아름다움의 일본인형' 관람 신청 명기

② 관람 희망 날짜 및 시간 명기

③ 관람자 전원의 성명과 휴대 전화번호(대표자에 한함) 명기 후, 예약 신청 메일 주소로 송부. 관람 희망일 2일 전 오후 4시까지 접수(월요일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주의 금요일까지 신청)

예약 접수 기간 9월 23일(목)~10월 26일(화)

예약 신청 이메일 주소 event@so.mofa.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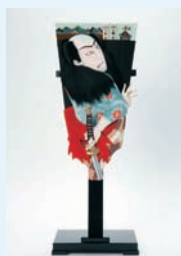
1일 13회 시간 지정 1회 10명까지(최장 30분까지 관람 가능)

(10:00, 10:30, 11:00, 11:30, 12:00,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예약자에게는 확인 메일 발송 예정.

문의 02-765~3011(ex120, 123) 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인형-예술과 아름다움의 일본인형'전은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센터에서도 개최된다. 또 관련 이벤트로 10월 2일(토)에는 '고게시 채색 체험'이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11월 6일(토) 동일 이벤트가 부산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일본의 전통 고게시 장인이 온라인으로 문화를 교류하는 역사적인 첫 번째 시도가 될 것이다.

2021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최로 '2021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가나콘)'가 개최된다. 한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및 청소년(만14세부터 18세)을 대상으로 일본어 문자(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티브로 창작한 디자인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2020년도부터는 COVID-19로 인해 수상식 및 전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모 내용

- (1) 응모자 자격 : 한국 국적의 중학생 · 고등학생 및 청소년(만 14세에서 18세)
- (2) 응모 부문(2부문) : 중학생 부문, 고등학생 부문
- (3) 수상 내역
대상(각 부문별 1명씩 총 2명), 부상
우수상(각 부문별 2명씩 총 4명), 부상
장려상(각 부문별 3명씩 총 6명), 부상
특별상(각 부문별 4명~10명 최대 20명), 부상

작품 응모 11월 12일 (금)까지

*응모처 : 가나콘 전용 홈페이지(www.jfkanacon.org)

결과 발표 12월 8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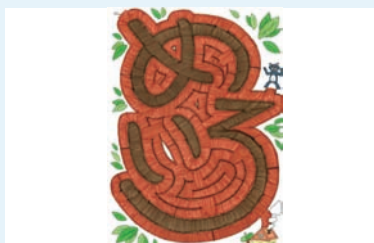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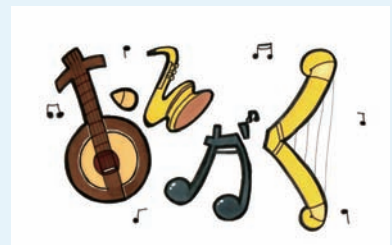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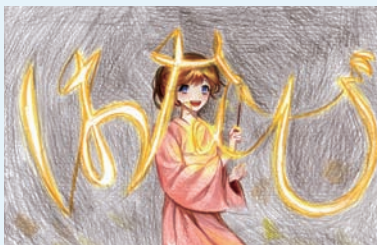
온라인 수상식 12월 15일(수)

온라인 수상작 전시 12월 15일(수) ~ 2022년 1월 30일(일)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후원 ㈜모리사와코리아, 일반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시사일본어학원,
인페인터글로벌, 일본어저널,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문의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02-397-2844, jfs-teacher@jpf.or.kr





제8회 한일포토콘테스트 개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행정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제8회 한일포토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양국 국민이 사진을 통해 상대국의 매력을 새로이 발견하고,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 촉진과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여전히 왕래가 어려운 올해는 '추억을 잇다, 마음을 전하다'를 콘셉트로 상대국의 매력을 담아낸 사진은 물론, 상대국에 소개하고 싶은 자국의 매력이 담긴 사진을 응모할 수 있다. 많은 참가자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추억의 사진을 응모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응모 방법】

한국 국적자 또는 일본 국적자는 누구든 참가 가능하며 '한일 양국의 매력'을 테마로 촬영한 사진을 '제8회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http://kjphotocon.org>)를 통해 응모한다. 우수 작품 응모자에게는 양국의 행정 기관 및 기업이 제공하는 상장과 부상(한국과 일본 왕복항공권, 카메라, 프린터, 여행상품권 등)을 수여한다.

【개최 일정】

작품모집 7월 28일(수)~10월 1일(금)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응모

결과발표 10월 22일(금)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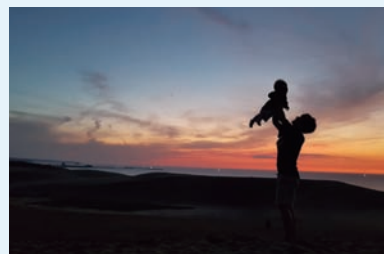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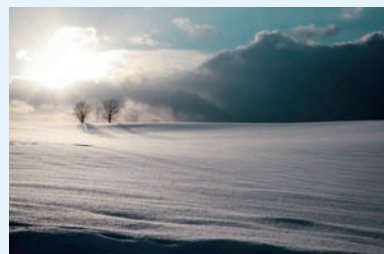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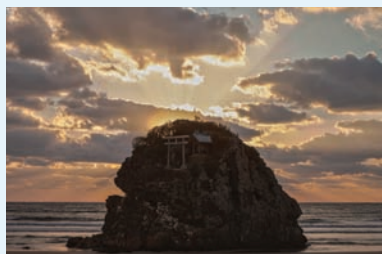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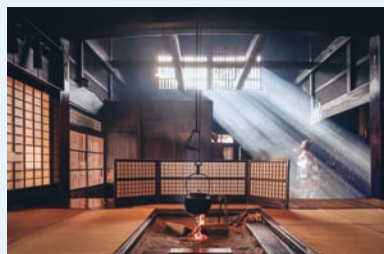
작품전시 11월 20일(토)~11월 30일(화)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시상식 11월 20일(토)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시상식 및 전시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사로 변경될 수 있음.



QR 코드를 스캔하여 응모





가장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대항만으로는 알기 쉽듯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심정지들 좌충우돌 유학(遊學)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코로나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양국 관계는 아직 침체된
가운데 헤쳐나갈 것 같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니

무령왕국제네트워크
한일 간 이해 촉진 공로
외무상(장관) 표창

와아~



이 상은 일본 외무성이 매년 일본과 우호·친선 관계 증진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한국과 관련
해서는 4명의 개인과 3개의 단체가 수상했다.

받아야 할 상을
받았네요~



올해 표창상을 수여 받은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이하 공주무령왕네트워크)는 2004년, 백제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시민교류를 목적으로
공주에서 발족된 시민단체다.



공주무령왕네트워크가
걸어 온 발자취

2003년부터 매년 6월 무령왕이 태어난
일본 가라쓰 가카라시마(唐津市加唐島)
섬에서 가라쓰 마쓰로 백제무령왕
네트워크협의회와 함께
'무령왕 탄생제'에 참가.

공주시의 자매도시인
야마구치시(山口市)를 비롯하여
야메시(八女市), 하비키노시(羽曳野市),
히라카타시(枚方市) 등... 과의
꾸준한 국제 교류.

제67회
백제문화제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 및
다양한 한일 교류 행사 참여.



일본 시즈오카(静岡)
조선통신사 축제에
참여하며 교류.

2006년에는 가카라시마에
무령왕 탄생 기념비 제막.
(공주대 김정현 교수 설계)



공주별

천문학자 사토 나오토
(佐藤直人) 씨의 협력으로
2012년 '무령왕' 별 등재에
이어 2014년 '공주' 별을
등재.

2000년전 연꽃인
오가하스(大賀蓮)를
치바(千葉)시에서 기증 받아
'무령왕 연꽃'이라 명명(命名)하고
무령왕릉 백제 연못에 식재.



양국의 학자를 초청해
다양한 국제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한마디로
한일 양국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야!



양국의 징검다리, 그 원동력은 백제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시절, '이웃나라와 화합을 이루며 사이 좋게 지내는 무령왕의 백제정신'.

올해 공주는 무령왕 강위강국 선포 1500년이자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그리고 무령왕 탄생축제 20주년이 되는 '무령왕의 해'다.

그 뜻을 기리며
실천하는 공주
무령왕네트워크네요.

이 상은 단체에게 주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요. 함께 만들어 온
회원 모두의 공로가 인정되었다는
기쁜 뜻이지요.



*공주대학교 윤용혁 명예교수님.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2021년 9월 18일 이곳에
무령왕 동상 건립 예정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공주시에서는 강위강국 1500년
엠블럼을 발표하고 기념 배지와 우표를 제작 배포하며
공주 시민은 물론 한일 양국에서 모아진 기금으로
무령왕 동상 제막식을 할 예정이다.

